

신약성경 그리스도교 예배전통 회복운동의 현재적 의미

(Today's Meanings of the Restoration Movement of the New Testament Christianity Order of the Worship)

조동호 목사(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들어가는 말

이 글의 목적은 종교개혁 500주년에 즈음하여 문예부흥운동과 종교개혁운동이 그리스도교 예배에 끼친 공과(功過)를 간략히 살펴보고, 신약성경 그리스도교 예배전통 회복(개혁)에 힘써온 환원운동(스톤-캠벨운동)의 현재적 의미를 살펴보려는데 있다.

1. 종교개혁운동의 공과(功過)

중세유럽에서 개인들은 그리스도님의 대리자(Vicar of the Son of God)임을 주장하는 교황 또는 사도적 계승(Apostolic succession)을 주장하는 사제들로 인해서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혀 있었다. 그것은 마치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을 단 한 곳, 곧 예루살렘 시온에만 두고, 대제사장 또는 사제들이 장악한 채 민족과 성별과 신분과 계급의 담, 곧 이방인의 뜰과 성전영내를 분리, 성전영내를 또 다시 여인의 뜰(모든 유대인들의 공간)과 이스라엘(13세 이상의 유대인 남성들 곧 계명의 아들들)의 뜰, 또 다시 이스라엘의 뜰과 제사장들의 뜰을 담으로 분리, 또 성소(메노라, 진설병상, 향단이 놓인 당번 제사장들의 공간)와 지성소(법계 곧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대제사장만의 공간)를 휘장으로 분리함으로써 개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았던 것과 같다.

그리고 14-16세기의 문예부흥운동과 16세기 종교개혁운동은 교황 또는 사제들로 인해서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혔던 개인들에게 혹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대신한 교황과 사제들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개인들에게 직접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운동이었다. 그것은 마치 성소의 휘장을 갈라놓은 그리스도님의 십자가 사건이 대제사장 또는 사제들에게 막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개인들에게 “휘장 안에 들어가게 하고”(히 6:19),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히 10:19) 하며,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지성소 법계 뚜껑) 앞에 담대히 나아갈”(히 4:16) 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히 10:22),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히 10:20) 열어 주었던 것과 같다.

문예부흥운동의 한 가지 핵심 가치는 “*Ad Fontes*”(근원으로)로써 ‘근본으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 ‘표준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는데, 이로 인해서 고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특히 라틴어 성경(Vulgate, 불가타)과 라틴어 미사만 허용되던 시대에 헬라어 필사본들과 히브리어 필사본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뤄져 헬라어신약성경과 히브리어구약성경이 출판되었다. 이와 동시에, 가톨릭교회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존 위클리프(John Wycliffe, c1320-1384, 라틴어에서 영어로), 윌리엄 틴들(William Tyndale, c.1494-1536, 히브리어와 헬라어성경에서 구약성경의 일부와 신약성경 전체를 영어로), 마르틴 루터(히브리어와 헬라어성경에서 독일어로)와 같은 종교 개혁가들은 모국어로 성경을 번역함으로써

라틴어를 모르는 자국민들에게 모국어로 성경을 읽거나 특히 예배 중에 모국어로 읽어 주는 성경말씀들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주었다.

종교 개혁가들은 가톨릭교회가 희생제사로 바치는 라틴어 미사와 성체신학(화체설)을 거부하면서 성경적인 예배쇄신에도 힘썼는데, 그리스도교 예배의 알맹이인 주의 만찬이 빠진 기도회로 추락시키는 오류를 범하였다. 이 때문에 일찍이 중앙신학교의 정용섭 교수는 주의 만찬이 없는 예배는 불구의 예배요, 불완전한 예배¹⁾라고 했고, 한신대학교의 이장식 교수는 기독교 예배에서 주의 만찬을 제외시키고 나면 유대교의 회당기도회로 전락되면서 그리스도교 예배의 특성이 상실되고 만다²⁾고 하였다.

유대교인들은 예루살렘 시온에 세워진 성전만을 유일하게 인정하였다. 따라서 주전 586년과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폐쇄되었을 때 하루 세 번씩 바치던 제사예배를 더 이상 바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유대교장로들은 회당에 모여 하루 세 번씩 ‘쉐모네 에스레이’(본래 18개, 주후 70년 이후에는 19개의 베라코트)를 낭송하는 기도회로 성전제사를 대신하게 하였다. ‘쉐모네 에스레이’ 베라코트(“복 받으시옵소서 하셈이시여”로 시작되는 기도문)를 낭송하는 것으로 고착된 유대교기도회에 주의 만찬을 첨가하여 성전예배의 의미를 살린 것이 신약성경 그리스도교 예배였다. 그리고 주의 만찬에 ‘신앙의 신비’(Mysterium fidei) 곧 성체신학(화체설)을 추가하여 그리스도교 예배를 ‘제사’로, 집례자를 ‘사제’(제사장)로, 주의 만찬상을 ‘제단’으로, 떡과 포도주를 ‘제물’로, 떡과 포도주를 바치는 행위를 ‘봉헌’으로 만든 것이 가톨릭교회의 미사이다. 그리고 주의 만찬에서 그 신비를 빼버린 것이 종교 개혁자들인데, 초빙글리가 주의 만찬에서 신비(미신)만 뺀 것이 아니라, 매일 드리는 예배내용 그 자체였던 주의 만찬을 연 2-4회로 줄임으로써 그리스도교 예배를 기도회, 경건회, 사경회, 부흥회로 추락시키는 오류를 범하였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개신교 역시 국가종교였기 때문이다. 초빙글리, 칼뱅, 루터는 국가종교의 틀에 갇혀있었고, 국가(시의회)는 주류 이외의 신앙운동들을 사형으로 다스렸다. 유럽에서는 가톨릭뿐 아니라, 개신교에도 신앙의 자유가 없었다(박해 사례: 재침례파, 윈스터 공동체, 청교도). 초빙글리와 칼뱅은 유아세례를 반대하고 정교분리를 주장한 재침례인들을 이단으로 정죄하였고, 시의회는 이들을 체포하여 익사(침례를 조롱할 목적으로), 화형 등의 방법으로 처형하였다. 그러나 평화주의, 무저항주의자들이었던 재침례인들은 그 어떤 저항이나 반항도 하지 않았다.

2. 그리스도교 분열과 교단세력화

교회사적으로 볼 때, 개혁운동들은 대개가 신조(신앙고백)주의, 교리(신학체계)주의, 신비주의, 경건주의, 합리주의 등으로 분열하였다. 큰 틀에서 보면, 그리스도교는 예수님 사후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시작된 ‘예슈아 메시아 운동’이었으나 유대교인들이 이들을 나사렛당(노뜨림, Notzrim)이라 폄하하고 배척함으로써 유대교로부터 분리되어 오늘의 그리스도교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리스도교는 유대교와 로마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발전을 거듭하였고, 외부의 박해와 내부의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신조를 만들기 시작하였으며, 조직과 제도를 정비하였다. 이로 인해서 325년 니케아신조를 시작으로 각종 신조들이 생산되었고, 암브로시우스, 테오도시우스, 아우구스티누스가 생존했던 4세기말에 그

1)정용섭, “그리스도교 예배의 신학: 말씀과 성례전의 신학적 균형을 위하여,” <기독교 사상> 제22권 12호(1978년 12월), pp. 137-138.

2)이장식, “예배와 성찬 의식,” <기독교 사상> 제23권 제2호(1979년 2월), pp. 63-65.

리스도교가 제국종교가 되면서 봉헌신학(奉獻神學)과 성체신학(聖體神學)이 급격히 발전하였고, 그로 인해서 지역교회들의 목양자와 감독들이었던 장로들이 사제로 둔갑되어 계급화 되었다(부제=집사, 사제=장로, 주교=담임사제, 대주교=교구장, 추기경, 교황 혹은 보제, 사제, 주교, 대주교, 총대주교). 또 313년 박해시대가 끝나고 392년 제국종교시대를 맞이한 그리스도교는 금욕과 고행을 통한 개인 경건과 신비주의 및 수도원운동으로 이어지는 암흑시대의 터널을 통과하였다. 게다가 16세기 종교개혁이후 개신교회들은 일치보다는 진리와 순수성에 경도되어 교파들을 난립시켰고, 교파별로 신조(교리)들을 쏟아내면서 자기 울타리를 견고히 하였다. 그리고 그 반작용으로 17세기에 이르러 신비주의운동과 경건주의운동이 나타났다. 한편 여러 교파와 파벌로 난립한 유럽의 개신교회들은 경쟁적으로 신대륙으로 진출하였고, 자신들의 교파교회들을 그대로 신대륙에 심었을 뿐 아니라, 19세기에 이르러서는 미국에서 자생한 다수의 그리스도교 교파들까지 생겨났다. 이와 거의 동시에 이성과 과학에 편향된 합리주의가 나타나 20세기에 이르러서는 거의 모든 교단들에서 성경관을 중심으로 근본주의(축자영감설), 복음주의(개념영감설), 진보주의(신앙고백설)로 분열하였다.

3. 18-19세기 개혁가들의 환원운동

이 같은 상황에 직면하여 18-19세기의 환원운동가들이었던 미국의 침례교 목회자 엘리야스 스미스(Elias Smith)와 아브너 존스(Abner Jones), 감리교 목회자 제임스 오켈리(James O'Kelley)와 라이스 해가드(Rice Haggard), 장로교 목회자 발톤 스톤(Barton W. Stone)과 토마스 알렉산더 캠벨(Thomas and Alexander Campbell, 알렉산더는 1813-30년 사이에 침례교에 소속함) 부자 그리고 월터 스코트(Walter Scott, 1827-30년 사이에 침례교에 소속함) 등은 그리스도교 일치와 순수성과 본래성 회복(환원)운동과 “Presbyterian”(장로대의정치), “Methodist”(방법론자), “Baptist”(침례자), “Adventist”(재림론자) 등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인’(Christian only)이 모인 ‘그리스도인의 교회들’(Christian Churches) 또는 ‘그리스도의 교회들’(Churches of Christ) 운동과 ‘신약성경 그리스도교 회복’(Restoration of the New Testament Christianity) 운동을 펼쳤다.

19세기의 환원운동가들은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서 미완으로 끝난 16세기의 종교개혁을 완성시키시려고 환원운동을 전령(Christian Messenger)으로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 그들은 이 확신 속에서 새천년시대의 선구자(Millennial Harbinger)를 자임하면서 교회일치운동과 신약성경 그리스도교(New Testament Christianity) 또는 사도전통 회복운동(Restoration Movement of the New Testament Ancient Order of Things)을 펼쳤다. 특히 알렉산더 캠벨(1788-1866)은 만 28세 때인 1816년 9월 1일 레드스톤 침례교 협의회(Redstone Baptist Association)에서 행한 ‘율법에 관한 설교’를 시작으로 개혁의 횃불을 들었고, 만 35세 때인 1823년 7월 4일에 시작하여 침례교를 떠날 당시인 1830년 7월 5일까지 만 7년 동안 <크리스천 뱃티스트>(Christian Baptist)지를 발행하였는데, 그곳에 1825년 2월 7일부터 ‘신약성경 그리스도교 전통의 회복’(A Restoration of the Ancient Order of Things)이라는 제목아래 일련의 기사들을 게재하기 시작함으로써 ‘신약성경 그리스도교 회복운동’에 일생을 바쳤다.

4. 알렉산더 캠벨의 예배쇄신운동

캠벨은 ‘신약성경 그리스도교 전통의 회복’ 5번에서 예배질서를 논하였는데, 여기서 그는

“그리스도교 집회들 안에 하나님이 권위를 부여한 그리스도교 예배질서가 있다”(There is a divinely authorized order of Christian worship in Christian assemblies.)는 첫째 입장에서 이어서 “그리스도교 집회들 안에 그리스도교 예배는 형식이 동일하다”(The Christian worship in Christian assemblies is uniformly the same.)는 둘째 입장을 밝히고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을 소개하였다.

They continued stedfastly IN the apostles' doctrine.
They continued stedfastly IN fellowship.
They continued stedfastly IN breaking of bread.
They continued stedfastly IN prayers.[KJV]

위의 영문에서 볼 수 있듯이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과 교제와 떡 뽕과 기도를 꾸준히 지속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예배는 예배질서의 다른 어느 요소들보다도 설교에 더 치중하고 있다.³⁾ 이어서 알렉산더 캠벨은 ‘신약성경 그리스도교 전통의 회복’ 6-9번까지에서 네 번에 걸쳐 ‘떡을 뽕에 관하여’(On the Breaking of Bread)라는 제목으로 매주 주의 만찬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떡을 뽕에 관하여-제3번’ 기사에서 앞서 논의한 내용들을 요약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리스도교 집회들 안에 신성하게 제정된(하나님이 권위를 부여한) 그리스도교 예배질서가 있다.

둘째, 예배의 이 질서는 형식이(한결같이) 동일하다.

셋째, 떡을 뽕의 본질과 목적은 떡 뽕을 그리스도교 집회들 안에 그리스도교 예배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만드는 것들이다.

넷째, 예루살렘에 차례로 세워진 첫 교회는 다른 어떤 천막예배나 떡을 세우는 행위에서와 마찬가지로 떡 떼기를 꾸준히 지속하였다.

다섯째, 제자들은 정기적으로 주 첫날에 만났고, 최우선적으로 강조적으로 이 목적(떡 뽕)을 위함이었다.

여섯째, 이 목적을 위해서 한 장소에 모이는 것이 교회의 설계 또는 최우선적인 목적이었다고 사도는 선언하였으며, 따라서 그가 차례로 세운 교회들에게 그것을 행하도록 명령하였다.

일곱째, 주의 만찬 예배를 일 년에 네 번, 두 번 혹은 매주일 이외에 다른 시기에 행하는 현재의 방법은 어떤 법도, 규칙도, 이유도, 권위도 없다.

여덟째, 우리는 신약성경 그리스도교가 행한 것에 반대할만한 몇몇 더 월등한 반대들을 고려해 보았고, 제시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반대들도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우리는 명시된 전례와 주 첫날에 떡을 떼기 위해서 한 곳에 모이라는 명시된 명령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조건들을 수용하는 기고자에 의해서 몇몇 반대들이 제안될 때까지 다른 증거들과 고려들을 유보할 것이다.⁴⁾

알렉산더 캠벨은 <기독교 체계>(The Christian System)에 실은 ‘떡을 뽕’이라는 장문의 글에서도 매주 주의 만찬 예배의 중요성을 체계적으로 강조하였다. 그는 이 글에서 일곱 개의 명제를 설정하고 그 명제에 따라 설명하였다. 이들 명제들만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명제 1, 하나님의 집(the house of God)이라 불리는 한 집이 지상에 있다.

3)Alexander Campbell, "A Restoration of the Ancient Order of Things. No. V: Oder of Worship," *The Christian Baptist*, July 4, 1825.

4)Alexander Campbell, "A Restoration of the Ancient Order of Things. No. VIII: On the Breaking of Bread.--No.III," *The Christian Baptist*, October 3, 1825.

명제 2, 하나님의 집에는 언제나 주님의 식탁(the table of the Lord)이 있다.

명제 3, 주님의 식탁 위에는 오직 한 덩어리의 떡(one loaf)이 필요하다.

명제 4,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집의 구성원들(members)이며 가족(family)이다. 그들은 거룩하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 칭함을 얻고 간주함을 받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구세주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원하는 만큼 자주 기쁨을 가지고, 주의 식탁의 떡과 잔에 두려움 없이 참여할 축복된 자들이다.

명제 5, 이 제정을 위해서 ‘떡을 쪼갬’(breaking the loaf)이란 칭호를 얻은 한 덩어리의 떡은 성도들이 그것을 먹기 전에 쪼개져야(broken) 한다.

명제 6,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것은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함이다.

명제 7, 언제나 ‘주의 만찬’(Lord's Supper)이라고 불리는,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한 덩어리의 떡을 떼고, 주의 잔에 공동으로 동참하는 행위는 그리스도교 회중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행하는 제정된 예배와 덕 세움의 일부분이다.⁵⁾

명제 1에서 ‘하나님의 집’(ho oikos Theou=the house of God)은 히브리서 10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지상의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말하고,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집’(oikos Theou=a house of God)은 개 교회들을 말한다.

명제 2에서 ‘주님의 식탁’(the table of the Lord)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서 사용한 ‘주의 상’(the Lord's table)에서 가져온 말이다. 캄벨은 구약시대의 성소에 상(床)이 있었고, 그 상위에 매주 12덩어리의 떡이 진설(陳設)되어 있었음을 상기하면서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집에도 언제나 바울이 말한 ‘주의 상’(the Lord's table)이 있었음을 강조하였다. 이 ‘주의 상’이 일 년에 한두 차례 쓰이기 위해서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명제 3에서 ‘오직 한 덩어리의 떡’(one loaf)은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 함이라”는 고린도전서 10장 17절의 말씀에서 가져온 말이다. 교회의 몸이신 그리스도가 한 분이시고,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고, 또 한 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깨지셨듯이 신약시대의 주의 상 위에는 오직 한 덩어리의 떡이 있을 뿐이라고 말한다. 신약성경에 사용된 ‘떡 땀’ 또는 ‘떡 쪼갬’(breaking of bread)이 갖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 여기서 ‘한 덩어리의 떡’이 문자적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한 덩어리의 떡으로 수십, 수백 혹은 수천 명의 사람들을 동시에 먹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만찬 예전에서 한 덩어리의 떡을 쪼개는 의식은 매우 중요한 신학적이고 예전적이며 시각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아진다.

명제 4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집의 구성원들(members)이며 가족(family)이다.”는 히브리서 3장 6절의 “우리는 그의 집(God's house)이라”는 말씀에서 가져온 말이다. “그들은 거룩하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 칭함을 얻고 간주함을 받는 자들이다.”는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a spiritual house)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에서 가져온 말씀이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구세주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원하는 만큼 자주 기쁨을 가지고, 주의 식탁의 떡과 잔에 두려움 없이 참여할 복된 자들이다.

명제 5에서 “이 제정을 위해서 ‘떡을 쪼갬’(breaking the loaf)이란 칭호를 얻은 한 덩어리의 떡은 성도들이 그것을 먹기 전에 쪼개져야(broken) 한다.”는 고린도전서 11장 23-24절에 “...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took bread), 축사하시고(had given thanks), 떼어(broke it), 가라사대(and said)”에서 가져온 말이다. 여기서 네 가지 예수

5) Alexander Campbell, *The Christian System*(Joplin, Missouri: College Press Publishing Co., 1989), pp. 266-294.

님의 행동 즉 (1)‘떡을 가지사’(took bread), (2)‘축사하시고’(had given thanks), (3)‘떼어’(broke it), (4)‘가라사대’(and said)는 주의 만찬예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예수님의 전통이자 사도들의 전통이며 교회의 전통이다.

명제 6에서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것은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함이다.”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주의 만찬을 행하는 신학적인 입장의 표명이다. 이 말은 고린도전서 11장 24-25절에서 잡히시던 밤에 떡과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두 번씩이나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Do this in remembrance of me)고 명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가져온 것이다.

신약성경 그리스도교가 예배를 제사와 물질의 성체화의식(聖體化儀式)으로 이해했다는 증거는 없다. 예수님이 주신 주의 만찬 제정의 말씀, “받아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다”(막 14:22)라는 표현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전 11:24)고 하신 말씀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당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했거나, 떡과 포도주가 축성된 후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 성체(聖體)를 먹고, 성혈(聖血)을 마셨다는 증거는 없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념하라’는 부탁의 말씀으로 받아 드렸고,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고전 11:26)으로 이해하였다.

명제 7에서 “언제나 ‘주의 만찬’(Lord's Supper)이라고 불리는,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한 덩어리의 떡을 떼고, 주의 잔에 공동으로 동참하는 행위는 그리스도교 회중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행하는 제정된 예배와 덕 세움의 일부분이다.”는 사도행전 2장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는 말씀과 사도행전 20장 7절,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는 말씀에서 가져온 것이다.

나오는 말: 신약성경 그리스도교 전통회복의 현재적 의미

신약성경 그리스도교 전통회복은 다섯 가지 측면에서 현재적 의미를 갖는다.

첫째, 신약성경 그리스도교 전통회복은 오늘의 교회들이 정통성 문제와 일치(혹은 연합)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사도성은 처음부터 정통과 이단을 구별하는 잣대였을 뿐 아니라, 정경과 외경을 구별하는 잣대였다. 따라서 “신약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은 이단들과 분열들로 얼룩진 오늘의 교회들에게 바른 교회가 무엇인가를 깨우치는 개혁운동이다. 바울은 교회들에 보낸 서신서들에서 “배운 것”과 “전한 것”이란 말을 여러 차례 썼다. 복음을 누구한테서 배웠는가와 누가 전하였는가 그만큼 중요하였기 때문이다. 갈라디아서 1장 11-12절에서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고 하였고, 고린도전서 11장 23-25절에서는 주의 만찬의 전례를 전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고 하였다. 이것은 주께 배워서 사도들이 전한 것이 복음의 올바른 계보요 전통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따라서 바울은 주께 받아서 사도들이 전한 것 이외의 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하였다. 또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에서는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고 하였다. 요한도, 사도의 가르침 이외의 것을 가르치는 자를 일컬어, 거짓선지자요 적그리스도이라고 단정하였다. 이와 같이 신약성경 그리스도교 당시에는 사도들이 가르치고, 사도들이 행한

전통대로 하지 아니하는 것을 일컬어 이단이라고 불렀던 것이다.

둘째, 신약성경 그리스도교 전통회복은 오늘의 교회들에게 성경해석상의 문제들을 해결해 준다. 총신대학교의 정훈택 교수는 “우리는 다른 어떤 책도 신약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진 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신약성경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기독교 경전이라고 해야 한다. 구약성경은 신약성경과 함께 읽힐 때에만 기독교 경전의 역할을 하게 된다. 우리는 구약성경을 읽고 사용하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의 사도들이 확신한 대로 예수님과 그의 관련성 속에서 읽는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다. 구약성경을 기독교적으로 읽고 사용하는 것이 구약성경의 진정한 의미라고 믿는다.... 구약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예표를 담고 있는 책들로 간주된다는 점에서 역시 기독교의 경전이다. 신약성경은 구약성경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신약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약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구약성경이 탄생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하는지를 제한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 구약성경을 신약성경이 말하는 대로 해석하지 않고 다르게 읽는다면, 그는 구약성경을 오해하는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구약성경을 기독교의 경전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⁶⁾고 강조하였고, 또 미국 그리스도의 교회 목회자였던 P. H. 웰시머(Welshimer, 1873-1957)는 그의 소책자에서 “우리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모두가 영감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신약성경은 독보적인 권위의 책이다. 비신자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하는 모든 것과 그리스도인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해야 하는 모든 것은 신약성경에 쓰여 있다. 옛 율법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골 2:14). 구약은 유대인을, 신약은 그리스도인을 위한 책이다. 구약에 있는 많은 계명들이 지금은 신약에 들어있다. 그러나 이 계명들이 우리에게 유효한 것은 그 계명들이 구약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신약에서 다시 제정되었기 때문이다. 구약은 감춰진 신약이고, 신약은 드러난 구약이다(The Old Testament is the New concealed; the New is the Old revealed). 우리에게 구약성경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신약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얻기 위함이다(We need the Old to help us understand the New).”⁷⁾고 강조하였다. 이는 신약성경이 구약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한 원칙, 곧 예수님과 사도들이 구약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했던 방식대로 해석하지 아니하면 저주의 대상인 다른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구약성경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책이라고 말한 것은 구약성경을 신약성경의 모형과 그림자로 보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해야 할 것을 의미한 것이다. 이런 해석방법이 예수님과 사도들의 해석방법이었고, 신약성경 저자들의 해석방법이었다. 그러므로 사도들의 가르침과 전통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교의 유대교화를 꾀하면 다음과 같은 폐단이 나타난다.

첫째, 가톨릭교회의 제사(봉헌)와 사제(제사장)개념은 그리스도교의 유대교화의 대표적 사례이다.

둘째, 제철 안식일(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준수를 고집하는 안식교(재림론자 교회)는 그리스도교의 유대교화의 대표적 사례이다.

셋째, 단일신론을 고집하며 예수님의 신성과 성령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여호와증인은 그리스도교의 유대교화의 대표적 사례이다.

6) 정훈택, 「신약개론」(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1998), 14-15쪽.

7) P. H. Welshimer, *Facts Concerning the New Testament Church*(Cincinnati, Ohio: The Standard Publishing Company), p. 6.

넷째, 일부다처제를 주장하는 몰몬교는 그리스도교의 유대교화의 대표적 사례이다.

다섯째, 구약성경의 문자적 해석을 고집하는 세대주의(시대구분론)자들은 그리스도교의 유대교화의 대표적 사례이다.

여섯째, '예슈아'를 그리스도로 믿으나 세대주의 성경해석법을 따르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Messianic Jews)은 그리스도교의 유대교화의 대표적 사례이다.

일곱째, 피 뿌림과 할례를 모방한 약식세례와 유아세례는 그리스도교의 유대교화의 대표적 사례이다.

여덟째, 반 그리스도교 유대인들인 에비온파(Ebionites)는 그리스도교의 유대교화의 대표적 사례이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유대인들에 국한된 것들을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요하거나 강조한다. 이런 경우 대개는 공리주의나 실용주의적 유용성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한데서 비롯된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교의 유대교화를 꾀하는 자들은 “다른 복음”(고후 11:4, 갈 1:6-9)을 전하는 자들,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는 자들(갈 1:7),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빌 3:18), “저주를 받을” 자들이었다(갈 1:8-9).

셋째, 사도들의 예배전통인 주의 만찬 예배는 성인성경공부가 거의 없는 오늘의 한국교회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죽음 그리고 부활승천에 대한 그리스도교 교리를 매주 교육할 수 있는 훌륭한 장점을 갖고 있다. 필자는 매주 주의 만찬 명상문을 간략히 작성하여 주보에 실고 주의 만찬 시간에 성도들과 더불어 읽고 그 의미를 새기고 있다.⁸⁾

넷째, 사도들의 예배전통인 매주 주의 만찬 예배는 주일예배참석률이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오늘의 교회들에게 교회성장을 위한 실천적 대안이 될 수 있다. 주5일제근무 시행으로 인한 주말여행이 잦아지고, 인터넷과 디지털영상의 발달로 교회출석률이 저하될 것을 우려하는 오늘의 교회들에게 사도들의 예배전통인 매주 주의 만찬 예배의 의미 있는 시행은 성도들의 교회출석률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다섯째, 사도들의 예배전통인 간략한 주의 만찬 예식은 주의 만찬의 도입으로 인해서 예배 시간이 길어질 것을 우려하는 오늘의 교회들에게 실천적 대안이 될 수 있다. 가톨릭교회나 동방정교회 또는 성공회와 같은 교회들이 시행하고 있는 성만찬예전은 상당부분 후대에 첨가된 교회전통이지 결코 사도전통이 아니다. 장엄하고 긴 성만찬예전은 개혁정신에도 어긋난다. 따라서 사도전통인 간략한 매주 주의 만찬 예배전통은 반드시 회복되어야 한다.

환원운동은 교파의 세력이 강한 한국에서조차 오늘의 개신교회들에게 몇 가지 중요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첫째, 개신교에 단 두 개뿐인 의식(ordinances)을 대수롭지 않게 취급하는 교회들에게 그리스도의 교회는 지난 3세기에 걸쳐 침수에 의한 신자의 세례의 중요성과 매주 주의 만찬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여왔다. 그 결과 1960년대 이후 많은 국내외 신학자들이 잘못된 개신교전통을 바로 잡아야한다, 침례의 중요성을 재인식해야한다, 매주 주의 만찬의 간략한 시행을 고려해야한다라는 목소리를 내기에 이르렀고, 비록 반응의 속도는 더디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둘째, 구약성경(율법)과 신약성경(복음)의 차이를 모른 채, 유대교화 되어가는 개신교회들에게 그리스도의 교회는 신약성경 그리스도교에로의 회복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여왔다. 그

8) 필자의 주의 만찬 명상문은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홈페이지(<http://kccs.info>)→예배설교→주의 만찬명상자료 게시판에 실려 있으며, 340여개에 이른다.

결과 앞에서 소개한 총신대학교의 정훈택 교수와 P. H. 웰시머 목사가 그랬던 것처럼 신약 성경 그리스도교의 중요성을 외치는 목소리들이 점차 커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교회는 지난 3세기에 걸쳐 일치와 환원이란 두 가지 이상(理想)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일치로 대표되는 대화, 화해, 평화와 환원으로 대표되는 근본, 기본, 기준, 표준, 본래성, 순수성을 어떻게 조화롭게 교차시켜, 마치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의 속성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교차하여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며 세상을 살리는 플러스가 되었듯이,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며 세상을 살리는 플러스가 되게 할까를 모든 교회들이 고민하도록 만드는데 기여하여왔다.